**<8장 : 이외 마지막 고려 사항들>**

컴퓨터 SW 15050045 이재우

프로젝트를 끝마친 시점에서 향후 미래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가지 존재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선 취업하여 실무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프로젝트 자체로서는 이를 단순히 경험 삼아 진행헀던 프로젝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향후 더 발전시켜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프로젝트에 온갖 열정을 쏟았고 또 프로젝트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된

경우에는 아마 이를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싶을 것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유하고 평가받고 싶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과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거나 투자를 받아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력도

없고 출판물도 없는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자금 조성 절차나 관련 서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 하면 연구 그룹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교와 관련된,

업무 관계를 맺은 기관들에게서 연구비와 같은 여러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원하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다.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결과물이 상업적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되면 그것들을 실제로 시장에 올려볼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업적 링크 구축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존재하고 또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떠한 제품에

대한 특허와 지적 재산권 등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어 관련 여러 기관들과 협력한다면 그들과의 이해 관계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속한 기관이나 학교, 또는 지도

교수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바로 앞 부분에서 저작권을 언급했듯이, 세상의 모든 실체에 대해서는 주인이 존재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떠한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과 저작권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무조건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준이 애매하여

학생이 속한 기관이나 학교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한 권리에 대해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이후 생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출판 및 출원하는 일 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서류 작성에 있어서 단순히 프로젝트 보고서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직 형식과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연구 영역에 대한 기여도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제품을 알리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유명한 저널이나 신문에 논문이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영국 컴퓨터 협회(British Computer Society, BCS)는 영국 내 컴퓨터 과학자와 정보 시스템

실무자들을 위한 대표적 전문 기관이다. 이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선 BCS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한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원래 BCS의 회원이 되려면 BCS 시험의 파트 1 또는 2를 이수해야 하지만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따면 시험 면제가 인정되어 BCS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프로젝트

과정을 진행 및 이수하면 시험 면제를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 및

조건들이 주어지게 된다. 반드시 해당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BCS의 회원이 되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면제 수준을 확인하고 제시된 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얻은 경험과 기술들은 향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터득해야 한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한가지는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개인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혼자서

진행하든 그룹으로 진행하든, 주어진 임무를 누구의 도움이나 개입없이, 스스로 혼자서 독립성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야 말로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이 쌓여 실무에서도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비판적이고 더 깊게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이해의 성숙을 나타내고 실무에서도 사물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항상 독자적인 연구와 학습으로 배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인

기반을 쌓게 된다. 특정한 도구, 언어 또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영역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수월하게 익히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래에 유사한 기술과 도구를 배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과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실무에 나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으로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하여 실무에 투입되거나 또는

학교에 남아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학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먼저 실무 현장에 투입된 경우에,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했던 학사 프로젝트와 달리 실무에서의 프로젝트는 모든 것이 제한된다. 비용에 따라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애초에 계획하고 의도한 기능들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책임을 떠 안고 제 시간 안에 완성한다는 압박감을 배로 느끼게 될

것이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사 과정은 평가의 일부로

프로젝트가 중시되고 박사 과정은 연구 프로젝트로 모든 것이 진행되므로 훨씬 더 깊은 사고와

지식이 필요하다. 실무에 가든 학교에 남아 더 깊은 공부를 하든, 학부생일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야한다는 것은 확실하다.